

六氣의 氣質의 특성에 따른 한의 진단 활용성에 관한 연구

임승일, 이유미, 나창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Abstract

A Study on Korean Medicine Diagnostic Application through Analysis of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of Six Qi

Seungil Lim, Yumi Lee, Changsu Na

Department of Diagnostics, Division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the expression status and diagnostic application of the diseas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ix Qi.

Methods

Suwenxuanjiyuanbingshi (Exploration to Mysterious Pathogenesis and Etiology Based on the Plain Questions, 1152), Shoushibao (Longevity and Life Preservation, 1615), Dongeubogam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1613) and two modern works on Six Qi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Results

Some substrate characteristics presenting Six Qi were extracted from original literatures. Also, we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ix Qi can be applied to clinical trials by presenting them as three criteria as wind, humidity, and temperatur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

Key words

Six Qi,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Korean Medicine Diagnostic, Application Analysis.

I. 서론

인체는 자연계의 사시 기후 변화에 적응하면서 기후 요소와 일정한 상호관계 속에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계 기후 변화는 질병 발생에 영향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러한 기후 인자를 파악하기 위한 범주로서 五運과 六氣가 제시되어 왔다⁽¹⁾.

六氣(風寒暑濕燥火)는 溫度, 濕度, 風度の 생물 환경 조건으로⁽²⁾ 인체 외부의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요소이다. 인체 외부에서 風寒暑濕燥火의 날씨나 환경 조건은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인체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인체는 小宇宙로⁽³⁾ 내부에서도 風寒暑濕燥火의 특성을 지니는 內氣가 존재한다. 이 내부의 六氣는 외부의 六氣와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하며 개별적인 생명현상과 생리 병리적 증상을 유발한다. 따라서 인체에서 발현되는 생리 병리적 증상은 風寒暑濕燥火에 상응하는 氣質의 특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六氣는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조건, 또는 환경으로서 인간의 생리 병리 현상에 절대적이며, 또한 內因 중시 이론이나 類型 體質論도 이 六氣라는 생물 환경의 조건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⁴⁾. 인체 내부의 六氣는 흔히 病邪, 즉 六淫이라 하여 병리적인 존재로만 인식하기 쉽지만, 인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자연스러운 생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⁵⁾는 六氣와 三陰三陽의 속성에 대하여 만물의 특성과 변화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육기가 氣와 形의 특성이 모두 드러난 개념이라고 하였다. 六氣는 자연적인 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온도의 寒熱, 습도의 燥濕, 그리고 풍도의 風과 相火를 구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그 속성을 양분하여 風과 熱과 濕은 양의 기운으로, 相火와 燥와 寒은 음의 기운으로 설명하였다.

이상의 인식을 바탕으로, 인체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각각 溫度, 濕度, 風度の 편향됨에 따라 氣質의 특성을 지니게 되며, 생활 중에 그 氣質의 특성과 관련된 기운에 상하거나 병증이 발현되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六氣의 氣質의 특성에 따른 병증의 발현 상태와 임상 진단에서의 활용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었다.

II. 조사 방법

六氣의 氣質의 특성을 논하기 위하여 임상 진단에 있어 六氣에 대한 병증에 대하여 『素問玄機原病式』⁽⁶⁾과 『壽世保元』⁽⁷⁾, 「五行與疾病的關係」⁽⁸⁾의 내용을 조사하였고, 아울러 『東醫寶鑑』⁽⁹⁾에 산재된 六氣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고찰하였다.

III. 결과

1. 윤길영의 육기 병리관

인체는 六氣의 편향에 의해 발병하기 쉬운 생리적, 병리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六氣의 특성을 윤⁽²⁾은 외래의 인자에 의하여 일어나는 병증과 五臟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병증으로 구분하였다(원문은 부록에 수록함). 표 1(Table 1)에 요약한다.

이상을 보았을 때, 六氣 중 暑氣는 배제하고 火와 熱을 心病症에, 風病症

을 肝病症에, 濕病症을 脾病症에, 燥病症을 肺病症에, 寒病症을 腎病症에 배속하는 변증 체계를 만들어 五臟 중심의 六氣 병리관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유완소의 오운육기 병리관

유완소의 『素問玄機原病式』⁽⁶⁾은 五運과 六氣에 대한 개념과 병증을 연계하여 기록(원문은 부록에 수록함)하여 이후의 한의학적인 원류에 해당하며, 시대적으로 이후에 나타나는 육기에 대한 기록은 이를 근거로 하였음을 알 수 있

Table 1. 尹吉榮, 『東醫臨床方劑學』의 육기 병증에 대한 규정

육기	증상	규정
風	掉眩, 諸暴強直, 筋攣不柔而痛, 拘攣裏急, 筋縮	발생 기능 이상. 肝의 질병에 속함.
寒	拘攣諸病, 上下水液清冷, 腹滿急痛, 下利清白, 食已不飢, 吐利腥穢, 屈伸不便, 厥逆, 手足踈攣而冷	침정 기능 이상. 腎의 질병에 속함.
熱	喘息羸, 語澁, 譫妄歌唱, 悲笑喜怒如狂, 冒昧, 煩渴, 暴注 (火) 諸熱瘡瘻, 目昧不明, 暴注, 氣逆上衝, 暴瘡冒昧, 躁擾, 狂越罵詈, 瘡瘍, 附腫, 瞶瘻, 暴病暴死 (熱)	추진 기능 이상. 心의 질병에 속함.
濕	諸瘡強直, 積飲(留飲), 痞隔, 中滿霍亂, 吐下, 體重, 附腫肉如泥按之不起	통합 기능 이상. 脾의 질병에 속함.
燥	諸氣膈鬱, 手足痿弱無力, 諸澁枯涸, 乾勁皴起	억제 기능 이상. 肺의 질병에 속함.

Table 2.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의 오운 병증에 대한 규정

오운	증상	규정
木	諸風掉眩	肝木에 속함.
火	諸痛癢瘡瘍	心火에 속함.
土	諸濕腫滿	脾土에 속함.
金	諸氣鬱病痿	肺金에 속함.
水	諸寒收引	腎水에 속함.

Table 3.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의 육기 병증에 대한 규정

육기	증상	규정
風	諸暴強直, 支痛軟戾, 裏急筋縮	風은 肝·膽의 氣.
火	諸熱, 瞽, 癰, 暴暗, 冒昧, 躁擾, 狂越, 罵詈, 驚駭, 附腫, 疼酸, 氣逆衝上, 禁栗如喪神守, 噦, 嘔, 瘡, 瘍, 喉痹, 耳鳴, 耳聾, 嘔湧, 目昧不明, 暴注, 瞶瘵, 暴病, 暴死	相火의 熱은 心包絡·三焦의 氣.
熱	諸病喘, 嘔, 吐酸, 暴注, 下迫, 轉筋, 小便混濁, 腹脹大鼓之如鼓, 癰, 疽, 瘍, 疹, 瘤氣, 結核, 吐下霍亂, 瞽, 鬱, 腫脹, 鼻塞, 鼽, 衄, 血溢, 血泄, 淋, 悶, 身熱惡寒, 戰栗, 驚, 惑, 悲, 笑, 譫, 妄, 衄蔑血汗	君火의 熱은 心·小腸의 氣.
濕	諸瘧強直, 積飲, 痞, 隔, 中滿, 霍亂吐下, 體重, 腫肉	濕은 脾·胃의 氣.
燥	諸澁, 枯, 涸, 乾, 勁, 皴揭	燥는 肺·大腸의 氣.
寒	諸病上下所出水液澄徹清冷, 癰, 瘕, 癰疽, 堅痞腹滿急痛, 下利清白, 食已不饑, 吐利腥穢, 屈伸不便, 厥逆禁固	寒은 腎·膀胱의 氣.

다. 표2, 3(Table 2, 3)에 『소문현기원병식』의 오운육기 병증에 대한 규정을 요약한다.

3. 공정현의 오운육기 병리관

『壽世保元』⁽⁷⁾의 기록(원문은 부록에 수록함)을 보면 『素問玄機原病式』⁽⁶⁾의 五運主病과 六氣爲病을 근거로 하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오행이론과 한의 생리 병리학적인 설명을 가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 5(Table 4, 5)에 『수세보원』의 오운육기 병증에 대한 규정을 요약한다.

4. 현대의 오운육기 병증 제시 사례: 「오행과 질병의 관계」

『五行과 疾病과의 關係』⁽⁸⁾를 살펴보면 『素問玄機原病式』⁽⁶⁾의 五運主病과 六氣爲病의 기술을 통합하여 오행으로 분류하여 해부학적인 기관과의 관계를 도모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도식적으로 연계시키는 점이나 각 분류 말미에서 시일과 오행을 결부시킨 점에서 볼 때, 임상적 접근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표 6(Table 6)에, 이 자료에 소개된 오행 병증에 대한 규정을 요약한다.

5. 『동의보감』에서 설명한 육기의 기질의 특징

현재 가장 빈용되는 한의 임상서인 『東醫寶鑑』⁽⁹⁾에서는 『素問玄機原病式』⁽⁶⁾의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六氣에 대해서만 專述하지 않아 六氣의 병증에 대한

설명은 여러 편에 산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5.1. 風의 증상과 기질적 특징

첫째, 風의 속성이 강한 경우, 靈明活動은 모두 風에 속한다고 하였는데¹⁾, 靈明活動이란 정신신경의 활발함을 의미한다. 이는 임상적으로는 마치 정신 중에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활동이 활발함이 風과 관련된 증상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風病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반면에 風病이 발현된 사람의 경우 정신사유 활동이 왕성해지는 측면도 있다. 이는 風은 ‘善行而數變’²⁾한 속성이 있다는 것과 관련이 깊으며 사람의 마음 상태뿐 아니라 風病의 병태에서도 쉽게 변하고 한결같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연에서 바람이 부는 날씨에 빨래가 잘 마르듯, 風은 濕을 말리게 되어 乾燥하게 되므로 血虛證을 유발하고 피부가 乾燥해지고 심하면 癢痒症과 皮膚發疹 등 燥症을 유발하게 된다³⁾.

外感으로 인한 風症의 특징은 ‘鼻塞聲重하고 惡風, 自汗하며 脈浮而有力’⁴⁾

- 1) 靈明活動假之于風。…… 風之盛也, 智如神。(東醫寶鑑·內景·身形·四大成形)(金丹大要 인용)
- 2) 風者百病之始也, 善行而數變。(東醫寶鑑·雜病·風·中風熱證)(醫學入門 인용)
- 3) 火熱勝, 則金衰而風生。緣風能勝濕, 熱能耗液而爲燥。陽實陰虛, 則風熱勝于水濕而爲燥也。(東醫寶鑑·雜病·燥·燥因血少)(醫學正傳 인용)
- 4) 傷風, 則涕流鼻塞聲重。…… 有汗而惡風, 此眞感風證也。(東醫寶鑑·雜病·風·傷風證)(醫學入門 인용). 脈浮而大者曰風。(東醫寶鑑·雜病·風痺·脈法)(傷寒論 인용)

Table 4. 龔廷賢, 『壽世保元』의 오운 병증에 대한 해석

오운	증상	해석
木	諸風掉眩: 頭目眩暈	金의 제약이 약해져 風木이 강해짐.
火	諸痛癢瘡瘍: 癢, 痛, 瘡瘍	癢·痛은 火氣의 微·甚. 瘡瘍의 膿水는 火氣의 항진으로 水氣의 제약이 나타나는 것.
土	諸濕腫滿: 腫, 滿	土의 濕이 항진되면 어딘가에 틀어막혀 부종과 팽만을 유발.
金	諸氣憤鬱, 病痿: 肺氣滿, 奔迫, 手足痿弱	燥邪는 肺를 침범하므로 폐의 氣滿, 奔迫이 나타나며 燥邪가 血을 고갈시켜 手足痿弱을 유발.
水	諸寒收引: 引, 急	收斂引急은 寒의 작용.

Table 5. 龔廷賢, 『壽世保元』의 육기 병증에 대한 규정

육기	증상	규정
風	暴強直(卒然堅勁), 支痛(筋攣不柔而痛), 綆戾, 裏急, 筋縮	風은 肝·膽의 氣.
火	眇, 瘕, 暴痞, 冒昧, 躁擾, 狂越, 罵詈, 驚駭, 附腫, 疼酸, 氣逆衝上, 禁慄如喪神守, 噦, 嘔, 瘡瘍, 喉痹, 耳鳴, 聾, 嘔涌溢, 食不下, 目昧不明, 暴注, 瞶瘕, 暴病暴死	相火의 熱은 心·包絡·三焦의 氣.
熱	喘, 嘔, 吐酸, 暴注下迫, 轉筋, 小便混濁, 腹脹大, 鼓之如鼓, 癰, 疽, 瘍, 疹, 瘤氣, 赤瘤, 丹慄, 結核, 吐下霍亂, 眇, 鬱, 腫脹, 鼻塞, 鼽, 衄, 血溢, 血泄, 淋, 閤, 身熱惡寒, 戰慄, 驚, 惑, 悲, 笑, 譫, 妄, 衄衄血汗	君火의 熱은 心·小腸의 氣.
濕	瘰, 積飲, 痞, 隔, 中滿, 吐下霍亂, 體重, 附腫, 肉如泥, 按之不起	濕은 脾·胃의 氣.
燥	澁, 枯, 涸, 乾, 勁, 皴揭	燥는 肺·大腸의 氣.
寒	上下所出水液澄澈清冷, 癥, 瘕, 癰疽, 堅痞, 腹滿急痛, 下痢清白, 食已不飢, 吐利腥穢, 屈伸不變, 厥逆禁固	寒은 腎·膀胱의 氣.

Table 6. 「五行與疾病的關係」의 오행 병증에 대한 규정

육기	증상, 질병 및 호발 부위	규정
木	掉眩, 暴强直, 支痛, 軟戾, 難轉側, 裏急筋縮, 兩脅疼 증상 호발 부위는 신경, 뇌, 근(筋), 두(頭), 항(項), 상지, 하지 / 혼한 질병은 담석증, 두통, 단지(斷肢)	“諸風掉眩”은 간목(肝木)에 속함 “諸暴强直”은 풍(風)에 기인
火	痛, 癢瘡, 諸熱, 昏暗, 躁譫狂, 暴注, 下迫, 嘔酸苦, 膺背徹痛, 血家殃(一切失血) 증상 호발 부위는 심, 소장, 인후, 눈, 귀, 어깨, 가슴, 치아, 혀 / 혼한 질병은 심장병, 패혈증, 관절 질환, 무좀, 안 질환, 인후 질환	“諸痛癢瘡”은 심화(心火)에 속함
土	腫, 滿, 霍亂, 積飲, 痞閉疼(痞硬, 便閉而痛), 食少, 體重肢不舉, 腹滿, 腸鳴, 飧泄 증상 호발 부위는 옆구리 주위, 소화기계, 등 / 혼한 질병은 위장 질환, 피부 질환, 위장관 질환, 치통, 창독(瘡毒)	“諸濕腫滿”은 비토(脾土)에 속함
金	氣鬱, 痿(肺痿), 喘咳, 痰血, 氣逆, 燥澁, 枯涸, 乾, 勁, 皮膚皴揭, 肩臂疼 증상 호발 부위는 대뇌, 소뇌, 신장, 늑막, 배꼽, 대퇴부, 정맥 및 혈액 / 혼한 질병은 호흡기계 질환 및 치질	조기(燥氣)가 병을 이루는 것은 모두 폐금(肺金)에 속함
水	收引, 吐下腥穢, 厥逆, 禁固, 骨節痛, 癰瘕, 疝, (腹)堅, 腹急滿 증상 호발 부위는 항문, 비뇨생식기, 안구 / 혼한 질병은 신장염, 뇌출혈, 근시, 실명, 신체 하부의 출혈 질환	“諸寒收引”은 신수(腎水)에 속함

하며 평소 外感이 아닌 상태에서도 쉽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明堂 즉, 코의 色이 黃赤하거나 鼻頭의 色이 붉은 症은 風’이라 하였는데⁵⁾, 평소 얼굴 특히 코 중심으로 붉은 상태의 경우는 風의 속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듯 風의 속성은 부풀게 하는 것이므로 ‘얼굴이 붓는 것은 風’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얼굴이 붓는 증을 胃風症이라고 한다⁶⁾.

이 외에도 中風, 歷節風, 破傷風⁷⁾, 頭風, 風暈, 風寒頭痛, 頭風旋⁸⁾, 風聾⁹⁾, 風濕으로 인한 項強¹⁰⁾, 風心痛¹¹⁾, 風腰痛¹²⁾, 風으로 인한 脚氣¹³⁾, 腸風¹⁴⁾ 등 風과 관련된 질환이 서술되어 있으며 대체로 신체의 상부의 질환이 많은 것은 風의 속성과 관련이 많다고 할 수 있다.

- 5) 明堂之色沈濁爲內, 浮澤爲外, 黃赤爲風……. (東醫寶鑑·雜病·審病·明堂察色) (黃帝內經靈樞 인용) 鼻頭…… 色赤爲風。(東醫寶鑑·外形·鼻·鼻色占病) (黃帝內經靈樞 인용)
- 6) 胃風爲面腫。(東醫寶鑑·外形·面·胃風證) (醫學入門 인용) 面腫曰風。(東醫寶鑑·外形·面·胃風證) (黃帝內經素問 인용)
- 7) 『東醫寶鑑·雜病·風』에 수록된 예.
- 8) 『東醫寶鑑·外形·頭』에 수록된 예.
- 9) 『東醫寶鑑·外形·耳』에 수록된 예.
- 10) 『東醫寶鑑·外形·頸項』에 수록된 예.
- 11) 『東醫寶鑑·外形·胸』에 수록된 예.
- 12) 『東醫寶鑑·外形·腰』에 수록된 예.
- 13) 『東醫寶鑑·外形·足』에 수록된 예.
- 14) 『東醫寶鑑·外形·後陰』에 수록된 예.

5.2. 寒의 증상과 기질적 특징

둘째, 寒의 속성이 강한 경우, 찬 기운은 ‘收引’하게 하므로¹⁵⁾ 오므라들게 되는 증상이 발현하기 쉽고¹⁶⁾, 특히 手足과 배가 차게 되기 쉽다¹⁷⁾. 따라서 따뜻함을 편하게 여기며, 胃와 腸이 차면 배가 脹滿하고 腸이 울고 殮泄하는 증상이 있다¹⁸⁾.

‘明堂(코)의 色이 白한 것은 寒이 되고 顏色이 靑白한 것은 熱氣가 적은 것’¹⁹⁾이라 하였으니, 얼굴이나 코가 하얀 症은 寒의 속성이 많은 것이다.

‘肥人은 氣가 虛하여 寒을 낳고 寒이 濕을 낳고 濕이 痰을 낳는다’²⁰⁾라고 하여 肥人은 寒뿐 아니라 濕이 많으므로 寒濕이 많다고 할 수 있다.

外感으로 인한 寒症은 傷寒과 清嚏, 咽痛, 頭痛 등 感冒의 症狀과 脈浮緊²¹⁾

- 15) 諸寒收引皆屬於腎。(東醫寶鑑·雜病·審病·內經病機) (黃帝內經素問 인용)
- 16) 陰勝則身寒, 汗出, 身常清, 數慄而寒。寒則厥, 厥則腹滿死。能夏, 不能冬。(東醫寶鑑·雜病·審病·辨陰陽二證) (黃帝內經素問 인용)
- 17) 掌中寒者腹中寒。魚上白肉有靑血脈者, 胃中有寒。(東醫寶鑑·雜病·審病·察病玄機) (黃帝內經靈樞 인용)
- 18) 多寒則腸鳴, 殮泄, 食不化。(東醫寶鑑·雜病·辨證·陰陽生病) (黃帝內經靈樞 인용) 寒中之屬則便熱。…… 胃中寒則腹脹; 腸中寒則腸鳴, 殮泄。(東醫寶鑑·雜病·辨證·便寒便熱) (黃帝內經靈樞 인용)
- 19) 明堂之色沈濁爲內, 浮澤爲外, 黃赤爲風, 靑黑爲痛, 白爲寒, ……。視其顏色, …… 靑白者少熱氣, …… (東醫寶鑑·雜病·審病·明堂察色) (黃帝內經靈樞 인용)
- 20) 肥人氣虛生寒, 寒生濕, 濕生痰。(東醫寶鑑·雜病·辨證·肥瘦辨病候) (丹溪心法 인용)

이 발현되며 이는 寒의 氣質의인 특성과 관계없이 바깥의 찬 기운에 상하여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평소 배가 차거나 수족이 찬 氣質의 특성이 있다면 ‘傷寒 陰症’²²⁾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背寒²³⁾, 冷心痛²⁴⁾, 寒腹痛²⁵⁾, 寒腰痛²⁶⁾, 風寒脇痛²⁷⁾, 寒厥²⁸⁾, 寒疝²⁹⁾ 등 寒과 관련된 질환이 서술되어 있으며, 대체로 신체의 하부에 존재하는 많은 증상은 寒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한편, 外感으로 인한 寒症의 경우는 인체의 상부에 많이 존재하며 脈 또한 浮하면서 緊한 반면, 寒의 氣質의 속성에 관련된 질환의 경우에는 脈이 沈하면서 緊하다³⁰⁾.

5.3. 暑의 증상과 기질적 특징

셋째, 暑의 속성이 강한 경우, 暑症의 특징은 ‘얼굴에 때가 끼고 自汗하고 身熱하며 背寒하고 煩悶, 大渴하고 倦怠

하며 少氣하고 毛聳하고 惡寒하며 혹은 頭痛하고 혹은 霍亂하며 혹은 四肢厥冷하면서 다만 신체에 통증이 없다’³¹⁾고 하였다. 暑의 경우는 熱症이지만 夏至 이후에서 處暑 이전까지 熱에 傷한 경우에 해당하므로³²⁾ 계절과 날씨의 제한이 있으며 暑의 氣質의 특성보다는 더운 여름에 더위에 상하거나 신체의 氣虛와 陰虛의 상태에서 暑病이 발생하기 쉽다³³⁾.

따라서 『東醫寶鑑·暑門』⁹⁾ 외에는 暑와 관련된 질환이 서술되어 있지 않으며, 熱과 관련된 질환은 火의 개념과 병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暑의 氣質의 특성은 배제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위의 윤²⁾과 『素問玄機原病式』⁶⁾의 분류와 같다.

5.4. 濕의 증상과 기질적 특징

넷째, 濕의 속성이 강한 경우, 濕症의 특징은 ‘얼굴빛이 浮澤하며 배가 脹滿하며 倦怠하고 四肢와 關節이 疼痛하고

21) 脈浮緊, 發熱, 惡寒, 身痛, 不汗出 …….(東醫寶鑑·雜病·寒·太陽兩傷風寒)(南陽活人書 인용)

22) 凡傷寒四肢厥冷, 吐利不渴, 靜謐, 此陰證之常也。(東醫寶鑑·雜病·寒·傷寒陰證)(醫學入門 인용)

23) 『東醫寶鑑·外形·背』에 수록된 예.

24) 『東醫寶鑑·外形·胸』에 수록된 예.

25) 『東醫寶鑑·外形·腹』에 수록된 예.

26) 『東醫寶鑑·外形·腰』에 수록된 예.

27) 『東醫寶鑑·外形·脇』에 수록된 예.

28) 『東醫寶鑑·外形·足』에 수록된 예.

29) 『東醫寶鑑·外形·前陰』에 수록된 예.

30) 弦緊爲寒脈。傷寒, 脈大浮數動滑, 此名陽也; 沈濇弱弦微, 此名陰也。(東醫寶鑑·雜病·寒·脈法)(脈經 인용) 寒令脈急。(東醫寶鑑·雜病·辨證·百病始生)(難經 인용)

31) 暑病, 身熱, 自汗, 口乾, 面垢而已。(東醫寶鑑·雜病·暑·暑病形證)(醫學入門 인용) 傷暑之證, 面垢, 自汗, 身熱, 背寒, 煩悶, 大渴, 倦怠, 少氣, 毛聳, 惡寒。或頭疼, 或霍亂, 或四肢厥冷。但身體無痛。(東醫寶鑑·雜病·暑·暑病形證)(仁濟直指方 인용)

32) 夏至日後病熱爲暑, 暑者相火行令也。(東醫寶鑑·雜病·暑·暑者相火行令也)(明醫雜著 인용)

33) 四時惟夏難將攝, 伏陰在內, 腹冷滑。(東醫寶鑑·雜病·暑·夏暑將理法)(眞西山先生衛生歌 인용) 三伏之時, 大熱傷氣, 養生家於此時尤慎之。(東醫寶鑑·雜病·暑·夏暑將理法)(醫學入門 인용)

번거롭고 一身이 重着하고 脈沈하면서 微緩하다'고 하였다. 濕은 脾에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관절에 흐르는 것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脾病症과 상통하는 경향이 있다³⁴⁾.

얼굴빛이 浮澤하다고 하는 것은 부은 듯 푸석푸석하면서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윤택한 상태이며, 濕은 水氣이므로³⁵⁾ 무겁고 가라앉는 속성이 있어 脈 또한 沈하면서 緩脈, 혹은 濡脈 등³⁶⁾이 나타난다. '濕이 오래 되면 浮腫하고 喘滿 昏冒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風이 끼면 眩暈하고 嘔噦하며 寒이 끼면 掣拳하고 掣痛한다'³⁷⁾고 하였는데, 이는 濕이 심해지면 氣血이 잘 흐르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하여 오히려 경련, 경직 등의 風症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는 風도가 과도하면 건조하게 되는 반면, 억제되어 소통되지 못하면 濕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풍도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지 않고 적절한 것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관건이 되는 것

이다. '項强症이 다 濕에 속한다'³⁸⁾고 하였는데, 項强에 대표적인 처방이 烏藥順氣散 가미방인 回首散³⁹⁾인 것도 같은 이치로 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濕量, 濕(熱)頭痛, 濕厥頭痛⁴⁰⁾, 濕聾⁴¹⁾, 濕腰痛, 濕熱腰痛⁴²⁾, 濕熱로 인한 脚氣와 痿病⁴³⁾ 등 濕과 관련된 질환이 서술되어 있다. 한편 濕의 상태가 痰飲으로 轉化하므로 痰飲과 관련된 질환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광범위해진다. 신체는 氣血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으므로 水氣인 濕과 관련된 질환은 전신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寒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肥人에게 寒濕이 많다⁴⁴⁾.

5.5. 燥의 증상과 기질적 특징

다섯째, 燥의 속성이 강한 경우, 燥는 '風이 濕을 이기고 熱이 津液을 소모하여 燥를 이루므로 말미암은 것이다. 밖에서 燥하면 皮膚가 皴揭하고 瘙痒하며 속에서 燥하면 精血枯涸하고 위에서 燥하면 咽鼻焦乾하고 아래에서 燥하면 便尿結閉한다'⁴⁵⁾고 하여 습도가 낮은 상

34) 面色浮澤, 是爲中濕。(東醫寶鑑·雜病·濕·中濕)(黃帝內經素問王冰註 인용) 中濕之脈沈而微緩。濕喜歸脾, 流於關節, 中之多使人腹脹, 倦怠, 四肢關節疼痛而煩, 或一身重着。(東醫寶鑑·雜病·濕·中濕)(世醫得效方 인용)

35) 濕卽水也。(東醫寶鑑·雜病·濕·濕乃水氣)(醫學入門 인용)

36) 傷濕之脈細濡。(東醫寶鑑·雜病·濕·脈法)(醫學入門 인용) 身痛脈沈爲中濕。脈浮爲風濕。(東醫寶鑑·雜病·濕·脈法)(南陽活人書 인용)

37) (中濕)久則浮腫, 喘滿, 昏不知人。挾風則眩暈, 嘔噦; 挾寒則攣拳, 掣痛。(東醫寶鑑·雜病·濕·中濕)(世醫得效方 인용)

38) 諸瘧項强皆屬於濕。(東醫寶鑑·外形·頸項·項强)(黃帝內經素問 인용)

39) [回首散] 治頭項强急, 筋急, 或挫枕轉項不得者。烏藥順氣散(方見風門)加羌活、獨活、木瓜, 水煎服。(東醫寶鑑·外形·頸項·項强)

40) 『東醫寶鑑·外形·頭』에 수록된 예.

41) 『東醫寶鑑·外形·耳』에 수록된 예.

42) 『東醫寶鑑·外形·腰』에 수록된 예.

43) 『東醫寶鑑·外形·足』에 수록된 예.

44) 肥人氣虛生寒, 寒生濕, 濕生痰。(東醫寶鑑·雜病·辨證·肥瘦辨病候) (丹溪心法 인용)

태로 水氣가 부족하여 마른 상태이다.

인체에서 水氣가 부족하다는 뜻은 精과 血이 마르는 것이므로 외부 환경으로 인한 질환보다는 精血不足으로 인한 虛勞症이나 老化的 경우⁴⁶⁾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暑症은 外氣로 인한 질환이 대부분인 반면에, 燥症은 內因으로 인한 증상이 대부분이며 氣質的으로 精血虛症이나 風症이나 熱症 등의 상태인 경우에 나타나기 쉽다.

燥와 관련된 질환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은 乾脇痛이 유일한데, 이 乾脇痛도 ‘虛가 甚하고 耗損을 이루어서 脇下에 항상 一點疼痛이 그치지 않는 症’⁴⁷⁾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精血虛症의 상태로 파악할 수 있겠다. 따라서 燥의 氣質的인 속성은 강마르고⁴⁸⁾ 윤택해야 할 기관이 윤택하지 못한 상태이다.

5.6. 火의 증상과 기질적 특징

여섯째, 火(熱)의 속성의 강한 경우, 呼吸 溫煖은 모두 火에 屬한다⁴⁹⁾고 하

였으므로 火熱症은 몸이 따뜻하고 더우며, ‘動하는 것이 많고 靜하는 것은 적으니’⁵⁰⁾ 움직임이 많고 마음도 급하고 예민하다.

心의 病症인 ‘얼굴이 붉고 입이 乾하고 잘 웃으며⁵¹⁾’ 脈이 洪數하다. 火는 炎上하는 속성이므로 위로 오르는 증상이 발현하기 쉽다. 위로 오르는 것은 따뜻한 기운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冷氣가 아래로부터 올라온다는 것’ 또한 火에 속한다고 하였다⁵²⁾.

윤⁽²⁾과 『素問玄機原病式』⁽⁶⁾에서는 火와 熱을 따로 분류하여 火는 相火, 熱은 君火로 분류하지만, 『東醫寶鑑·火門』⁽⁹⁾에서 火와 熱과 관련된 病症을 통합하여 다루었다. 더위에 傷한 경우 즉, 外熱은 暑病으로 하고, 火와 熱의 증상 즉, 內熱은 火病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火(熱)症은 외적인 원인보다는 내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氣質的 속성과 관련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질환은 五臟熱, 三焦熱, 積熱,

45) 燥者肺金之本, 燥金受熱, 化以成燥澁。由風能勝濕, 熱能耗液而成燥也。燥於外則皮膚皴揭, 瘙痒; 燥於中則精血枯涸; 燥於上則咽鼻焦乾; 燥於下則便尿結閉。(東醫寶鑑·雜病·燥·燥者肺金之病)(醫方類聚 인용)

46) 年老, 精血俱耗。(東醫寶鑑·內景·身形·老因血衰)(醫學入門 인용)

47) 虛甚成損, 脇下常一點痛不止者, 名曰乾脇痛, 甚危。(東醫寶鑑·外形·脇·乾脇痛)(醫學入門 인용)

48) 瘦人血虛生熱, 熱生火, 火生燥。(東醫寶鑑·雜病·辨證·肥瘦辨病候)(丹溪心法 인용)

49) 釋氏論曰: 地水火風和合成人, …… 呼吸 溫煖皆屬乎火 ……。(東醫寶鑑·內景·身

形·四大成形) 溫煖燥熱假之于火。(東醫寶鑑·內景·身形·四大成形)(金丹大要 인용)

50) 人身有二火。曰君火, 猶人火也; 曰相火, 猶龍火也。在氣交之中, 多動少靜, 凡動皆屬火, 化動之極也, 病則死矣。(東醫寶鑑·雜病·火·火爲元氣之賊)(儒門事親 인용)

51) (心)外證, 面赤, 口乾, 善笑。(東醫寶鑑·內景·心臟·心病證)(難經 인용)

52) 病人自言冷氣從下而上者, 非眞冷氣也, 此上升之氣自肝而出中, 挾相火自下而上, 其熱爲甚。自覺其冷者, 此火極似水, 積熱之甚也。(東醫寶鑑·雜病·火·上升之氣屬火)(丹溪心法 인용)

Table 7. 許浚, 『東醫寶鑑』의 육기 병증과 그 특징

육기	증상 및 질병	특징적 양상
風	涕流, 鼻塞, 聲重, 有汗, 惡風, 鼻頭色赤, 面腫, 中風, 歷節風, 破傷風, 頭風, 風暈, 風寒頭痛, 頭風旋, 風聾, 頸項強痛, 風心痛, 風腰痛, 脚氣蹠跛(寒風濕), 瘴毒脚氣(風濕毒氣), 腸風	·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함 · 피부가 건조하고 발진, 소양감이 있음 · 코가 붉음 · 신체 일부가 부음(부종) · 신체 상부로 증상이 나타남
寒	身常清, 數慄而寒, 厥, 腹滿, 腹脹, 腹中寒, 腸鳴, 殭泄, 面白, 四肢厥冷, 吐, 利, 不渴, 靜謐, 背寒, 冷心痛, 寒腹痛, 寒腰痛, 風寒脇痛, 寒厥, 寒疝	· 위축 경향이 나타남 · 코가 흰 · 신체 하부로 증상이 나타남(외감 한증은 상부로 나타남)
暑	身熱, 自汗, 口乾, 面垢, 背寒, 煩悶, 大渴, 倦怠, 少氣, 毛聳, 惡寒, 或頭疼, 或霍亂, 或四肢厥冷	※ 열성 증상은 火와 동일
濕	面色浮澤, 腹臌脹, 倦怠, 四肢關節疼痛而煩, 或一身重着, 瘧, 項強, 中濕(浮腫, 喘滿, 昏不知人), 濕暈, 濕(熱)頭痛, 濕厥頭痛, 濕聾, 濕腰痛, 濕熱腰痛, 濕脚氣, 痿病	·脾의 증상과 연결됨 · 병소에 물기가 많음 · 沈, 重 경향이 나타남 · 살찐 사람에게 흔히 나타남 · 몸 전체로 증상이 나타남
燥	皮膚皴揭, 瘙痒, 咽鼻焦乾, 便尿結閉, 乾脇痛	· 병소가 건조함 · 피부가 주름지고 소양감이 나타남 (風과 달리 內因에서 비롯된 예가 많음) · 수척함. 마른 사람에게 흔히 나타남
火	面赤, 口乾, 善笑, 冷氣從下而上, 五臟熱, 三焦熱, 積熱, 骨蒸熱, 五心熱, 潮熱, 陰虛火動, 熱暈, 濕熱頭痛, 熱厥頭痛, 背熱, 熱心痛, 熱腹痛, 濕熱腰痛, 脚氣(濕熱脚氣), 痿病(濕熱痿病), 目疾, 口糜, 口瘡, 耳鳴, 咽喉痛	· 움직임이 많음 · 마음이 급하고 예민함 · 얼굴이 붉음 · 위로 오르는 증상이 나타남

骨蒸熱, 五心熱, 潮熱, 陰虛火動⁵³), 熱暈, 濕熱頭痛, 熱厥頭痛⁵⁴), 背熱⁵⁵), 熱心痛⁵⁶), 熱腹痛⁵⁷), 濕熱腰痛⁵⁸), 濕熱로 인한 脚氣이나 痿病⁵⁹)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眼無火不病⁶⁰’이라고 하는 것처럼 口糜, 口瘡⁶¹), 耳鳴⁶²), 咽喉痛⁶³) 등 진액이 존재하는 모든 기관은 火가 원인이 되어 발병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火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⁶⁴) 火와 관련된 질환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동의보감』에 소개된 육기의 병증과 그 특징을 표 7(Table 7)에 요약한다.

III. 고찰

『素問玄機原病式』⁽⁶⁾의 「六氣爲病」 조문에서는 六氣에 따른 病症을 나열하였

는데, 전술한 윤⁽²⁾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暑氣를 제외하고 火類와 熱類로 나누어 六氣를 분류하였으나 少陽相火인 心包를 火類에 추가하여 배속한 것이 다르다. 「五運主病」 조문에서는 六氣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心包를 제외한 五臟에 배속하여 비교적 간단 명료하게 서술하였다.

『壽世保元』⁽⁷⁾의 경우는 『素問玄機原病式』⁽⁶⁾의 분류를 그대로 가져와 관련 증상의 생리병리적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五行과 疾病과의 關係』⁽⁸⁾는 六氣의 개념을 五行으로 귀속하고 도식화하였으며 현대 해부학적인 기관과의 연계성을 주장하였다.

『東醫寶鑑』⁽⁹⁾의 六氣에 대한 견해는 氣質적인 면보다는 증상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風의 속성이 강한 사람의 경우는 몸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風症이 발현되기 쉽고 몸이 본래 찬 경우에는 寒症이, 濕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濕症이, 건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燥症이, 열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火熱症이 발현되기 쉬운 理致(同氣相求)로 볼 때, 氣質적인 특성에 따라서 같은 조건에서 다른 병증이 발현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 더 나아가 六氣에 따른 체질적인 분류를 시도하는 경향⁽¹⁰⁾도 있으나, 이러한 체질적인 분류는 인체를 보는 관점을 고정적으로 지정함으로 다양한 인간 생활의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東醫寶鑑·風門』⁽⁹⁾에 “小續命湯은 風人이 마땅히 常服하므로써

-
- 53) 『東醫寶鑑·雜病·火』에 수록된 예.
 - 54) 『東醫寶鑑·外形·頭』에 수록된 예.
 - 55) 『東醫寶鑑·外形·背』에 수록된 예.
 - 56) 『東醫寶鑑·外形·胸』에 수록된 예.
 - 57) 『東醫寶鑑·外形·腹』에 수록된 예.
 - 58) 『東醫寶鑑·外形·腰』에 수록된 예.
 - 59) 『東醫寶鑑·外形·足』에 수록된 예.
 - 60) 目不因火則不病。(東醫寶鑑·外形·眼·眼無火不病) (儒門事親 인용)
 - 61) 『東醫寶鑑·外形·口舌』에 수록된 예.
 - 62) 『東醫寶鑑·外形·耳』에 수록된 예.
 - 63) 『東醫寶鑑·外形·咽喉』에 수록된 예.
 - 64) 儒者立教曰: “正心”, “收心”, “養心”, 皆所以防此火之動於妄也。 醫者立教曰: “恬澹虛無, 精神內守”, 亦所以遏此火之動於妄也。(東醫寶鑑·雜病·火·制火有方) (丹溪心法 인용) 火不妄動, 動由於心。 靜之一字, 其心中之水乎! …… 神靜則心火自降, 慾斷則腎水自升。(東醫寶鑑·雜病·火·制火有方) (醫學入門 인용)

痞癰을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로써 六氣의 체질적인 접근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밝혀두고 싶은 것은 六氣에 대한 논의에서 五運과 연계되는 점이다. 『東醫寶鑑·天地運氣門』⁽⁹⁾에서도 五運六氣論을 다루고 있으며 상술한 「五行과 疾病과의 關係」⁽⁸⁾에서도 오행에 따라 시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근대적인 한의학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素問玄機原病式』⁽⁶⁾에서의 五運主病은 運氣論에서 말하는 天干地支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五臟, 五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학문적으로 다양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대의 한의학은 보다 현대의 인식과 사고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천간지지를 근간으로 하는 五運六氣論은 정리되어야 할 논리임이 분명하다.

六氣의 氣質의 특성을 한의진단에 활용함에 있어 이상의 六氣의 특성을 風度, 濕度, 溫度의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 風度は 濕度, 溫度와 달

리 반대되는 개념이 없다. 최⁽⁵⁾의 경우에는 風度を 풍과 상화로 대별하였지만, 이러한 논리는 삼음삼양의 규격에 맞추고자 하는 이론적인 개념으로, 동의할 수 없다. 풍도, 습도, 온도가 기준점에 있는 상태는 적당히 바람 불고 적당히 습하고 적당히 따뜻한 상태로 건강한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風도가 기준보다 강하든 약하든 모두 풍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風도가 높은 경우는 조와 열에 병합하기 쉽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과 습에 병합할 수 있고, 風도가 낮은 경우는 한과 습에 병합하기 쉽다. 따라서 風도가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풍++’, ‘풍+’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풍--’, ‘풍-’로 구분하여 기호화할 수 있겠다. 인체의 精氣神血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체계이다. 풍의 속성은 생체 내에서는 精氣神血의 흐름이며, 그 風도가 기준인 상태는 흐름이 적절한 상태이며, 기준보다 높거나 낮다는 것은 흐름이 적절하지 못하

Table 8. 六氣의 氣質의 특성 風度, 濕度, 溫度의 정도에 따른 적용법 예시.

최고	고	기준	저	최저
풍++	풍+	風度	풍-	풍--
풍, 풍열, 풍조, 풍조열, 풍한, 풍습, 풍한습*			풍, 풍한, 풍습, 풍한습*	
습++	습+	濕度	습-	습--
습, 습열, 한습, 풍습, 풍한습*			조, 조열, 풍조, 풍조열*	
온++	온+	溫度	온-	온--
열, 풍열, 습열, 조열, 풍조열*			한, 풍한, 한습, 풍한습*	

※ 해당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六氣症의 예시.

여 과불급의 상태이므로 병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濕도와 溫度는 각각 습과 조, 열과 한으로 대별하여 각각 요소에 따라 기호화할 수 있겠지만, 단순화하기 위해 각각 ‘습’과 ‘온’으로 기준을 삼는다. 濕도는 기준보다 높으면 습증으로 정도에 따라 ‘습++’과 ‘습+’로, 기준보다 낮으면 조증으로 ‘습--’과 ‘습-’로 정하고, 온도는 기준보다 높으면 열증으로 ‘온++’과 ‘온+’로, 기준보다 낮으면 한증으로 ‘온--’과 ‘온-’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한편으로 六氣는 신체에서 독립적인 형태로도 작용하지만, 다른 기운과 병합하는 형태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 중에서도 風과 火, 燥가 비슷한 속성으로 風熱, 燥熱, 風燥, 風暑, 風熱燥 등이 빈발하고 寒과 濕이 비슷한 속성으로 寒濕이 빈발하지만, 風의 경우는 風度を 나타내는 척도이므로 寒과 濕과도 병합하여 風濕과 風寒, 風寒濕도 빈발한다. 또, 전혀 다른 속성인 火와 濕이 병합하여 濕熱을 이루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실로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한 신체의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六氣에 대한 진단적 접근은 고정적이고 체질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氣質의 특성에 따른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六氣의 氣質의 특성과 증세에 따라 한의진단에 활용하는데 기준을 삼아 적용할 수 있으며, 표

로 정리하면 표 8(Table 8)과 같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六氣의 氣質의 특성에 따른 병증의 발현 상태와 임상 진단에서의 활용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바, 風寒暑濕燥火, 六氣는 다음과 같은 氣質의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첫째, 風의 氣質의 특성으로는 정신신경의 활발함, 쉽게 빠르게 변함, 乾燥함과 血虛證, 평소 얼굴 특히 코 중심으로 붉음, 부풀어 오르는 증상 등이며, 風은 다른 六氣와 병합할 수 있어 風寒, 風暑, 風濕, 風燥, 風熱, 風寒濕, 風熱燥 등으로 化할 수 있다.

둘째, 寒의 氣質의 특성으로는 收引하며 手足과 배가 차며 脹滿하고 腸이 울고 瀉泄함, 얼굴이나 코가 하얀 症, 肥人 등이며, 寒濕, 風寒 등으로 化한다.

셋째, 暑의 氣質의 특성은 배제한다.

넷째, 濕의 氣質의 특성으로는 얼굴빛이 浮澤하며 배가 脹滿하며, 倦怠하고 사지와 관절이 疼痛하고 번거롭고 인체가 重着하고 脈沈하면서 微緩함, 脾病症 경향, 경직됨 등이며, 風濕, 寒濕, 濕熱 등으로 化한다.

다섯째, 燥의 氣質의 특성으로는 乾燥함, 津液의 부족, 精血虛症 등으로 瘦人이거나 윤택해야 할 기관이 윤택하지 못한 경우이며, 風燥, 燥熱, 風熱燥 등으로 化한다.

여섯째, 火(熱)의 氣質의 특성으로는

몸이 따뜻하고 더우며 마음이 급하고 잘 動하며, 예민하고 얼굴이 붉고 입이 乾하고 잘 웃고 炎上함 등이며, 風熱, 燥熱, 濕熱, 風燥熱 등으로 化한다.

六氣의 氣質的 특성을 한의진단에 활용함에 있어 이상의 六氣의 특성을 풍도, 습도, 온도의 세 가지 기준으로 제시하여 임상에 적용할 수 있다. 풍도, 습도, 온도가 기준점에 있는 상태는 건강한 기준점에 해당한다. 풍도가 기준보다 강하거나 약하면 풍증이고, 습도가 기준보다 강하면 습증, 기준보다 약하면 조증이며, 온도가 기준보다 강하면 열증, 기준보다 약하면 한증에 해당한다.

六氣의 특성은 신체에서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風熱, 燥熱, 風燥, 寒濕, 風濕, 風寒, 風寒濕, 風燥熱, 濕熱 등 다양한 형태로 병합한다. 따라서 六氣에 대한 진단적 접근은 고정적이고 체질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氣質的 특성에 따른 접근이 바람직하다.

V. 참고문헌

1. Physiology Professors of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Korea. Traditional Korean physiology. Seoul. Jipmoon dang. 2008.
2. Hyungok Gilyong Yun. Korean Medicine Clinical Prescription(東醫臨床方劑學). Seoul. Myungbo Press. 1985, 22.
3. CK Lim.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Human Body in 『Huangdineijing』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rrespondence between Nature and Human.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2; 26(6): 855-63.
4. GC Kim, DG Hong. A Study on the system in the Theory of 'Syndrome Differentiation' from the Viewpoint of Yoon Gilyeong.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Diagnostics. 2016; (20)1 : 15-26.
5. WJ Choi. A Study on the Three Yin and Three Yang, and Six Qi:Based on the Theory of 'Yun Qi 'and Meteorological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4; 31(3): 117-24.
6. WS Yu. Seoul. Somunhyungbyungwon sik(素問玄機原病式). Mulgogisup Press. 2019.
7. http://www.360doc.com/content/12/0115/13/4563138_179515423.shtml
8. <https://jason168chiu.pixnet.net/blog/post/52126842>
9. Her-Jun. Donguibogam(東醫寶鑑). Seoul. Namsandang. 1994.
10. GW Kim. The study of Yun Qi & Constitution - focussed on OUnYuk KiHanEuiHakBoGam.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97; 10(1): 591-617.

부록

인용 자료 1. 윤길영, 『동의임상방제학』

風病症은 외래의 風邪(發生機能(肝氣) 활동 이상을 일으키는 因子)가 침범하거나 체내의 발생기능(肝氣) 活動異常 (古人은 肝木 또는 足肝膽二經, 厥陰, 風木之氣라고 함)으로 발하는 병증이다. 이病症의 예를 들어 보면 掉眩, 諸暴强直, 筋攣不柔而痛, 拘攣裏急, 筋縮 등 발생기능(肝氣) 활동 이상으로 일어나는 병증 類이다. 그러므로 五臟의肝病에 속한다.

寒病症은 외래의 寒邪(沈靜機能(腎氣) 활동 이상을 일으키는 인자)가 침범하거나 체내의 沈靜機能(腎氣) 活動異常 (古人은 腎水 또는 腎, 膀胱, 足少陰太陽二經, 寒水之氣라고 하였다)으로 발생하는 병증이다. 이病症의 예를 들어보면 拘攣諸病, 上下水液清冷, 腹滿急痛, 下利清白, 食已不飢, 吐利腥穢, 屈伸不便, 厥逆, 手足踈攣而冷 등 沈靜機能(腎氣) 활동 이상으로 일어나는 병증이다. 그러므로 五臟의 腎病症은 寒熱虛實의 寒과 通한다.

熱病症은 外來의 熱邪(推進機能(心氣) 活動異常을 일으키는 因子)가 침범하거나 체내의 推進機能(心氣) 活動의 異常(古人은 心火, 少陰君火, 心·小腸之氣, 少陽相火之氣, 心包絡·三焦之氣, 少陰君火之氣 等이라고 하였다)으로 발생하는 병증이다. 이病症의 예를 들어 보면 熱과 火로 兩分하고 熱은 心火 또는 心小腸之氣로 痛痒瘡瘍, 小便渾濁, 腹大如鼓, 癰疽瘍疹, 贅鬱腫脹, 譫妄 등 병증이고, 火는 少陽相火之氣 또는 心包絡三焦之氣로, 熱病症의 예를 들어 보면 諸熱 贅瘕, 目昧不明, 暴注, 氣逆上衝, 暴瘖冒昧, 躁擾, 狂越罵詈, 瘡瘍, 附腫, 咽痺, 暴病暴死 등 病症이고, 火病症은 喘息籲, 語澁, 譫妄 歌唱, 悲笑喜怒如狂, 冒昧, 煩渴, 暴注 등 병

증으로 분류되지만 區分이 分明하지 않은 것으로 두 가지 모두 推進機能(心氣) 活動異常으로 일어나는 病症이다. 그러므로 五臟의 心病에 속하며 寒熱虛實의 熱과 通한다. 濕病症은 외래의 濕邪(統合機能(脾氣) 활동 이상을 일으키는 因子)가 침범하거나 체내의 統合機能(脾氣) 활동이상(古人은 脾土, 太陰濕土, 足經脾胃之氣라고 하였다)으로 발하는 병증이다. 이病症의 예를 들어 보면 諸瘧强直, 積飲(留飲), 痞隔, 中滿霍亂, 吐下, 體重, 附腫肉如泥按之不起 等 統合機能(肝氣) 활동 이상으로 일어나는 병증이다. 그러므로 五臟의 脾病에 속한다.

燥病症은 외래의 燥邪(抑制機能(肺氣) 活動異常을 일으키는 因子)가 침범하거나 체내의 抑制機能(肺氣) 활동 이상 (古人은 肺金 또는 陽明燥金 與 大腸之氣라고 하였다)으로 발생하는 燥病症이다. 이病症의 예를 들어 보면 諸氣臍鬱, 手足痿弱無力, 諸澁枯涸, 乾勁皴起 등 抑制機能(肺氣) 異常으로 일어나는 병증이므로 五臟의 肺病症에 속한다.

인용 자료 2. 유완소, 『소문헌기원병식』

▶ 五運主病

- 諸風掉眩, 皆屬肝木。
- 諸痛癢瘡瘍, 皆屬心火。
- 諸濕腫滿, 皆屬脾土。
- 諸氣鬱病痿, 皆屬肺金。
- 諸寒收引, 皆屬腎水。

▶ 六氣爲病

- 風類: 諸暴强直, 支痛軟戾, 裏急筋縮, 皆屬於風。(厥陰風木, 乃肝膽之氣也)
- 熱類: 諸病喘, 嘔, 吐酸, 暴注, 下迫, 轉筋, 小便混濁, 腹脹大鼓之如鼓, 癰, 疽, 瘍, 疹, 瘤氣, 結核, 吐下霍亂, 贅, 鬱, 腫脹, 鼻塞, 鼽, 衄, 血溢, 血泄, 淋, 悶, 身熱惡寒, 戰栗, 驚, 惑, 悲, 笑, 譫, 妄, 衄蔑血汗, 皆屬於

熱。(手少陰君火之熱，乃眞心小腸之氣也)

○ 濕類: 諸瘧強直，積飲，痞，隔，中滿，霍亂吐下，體重，腫肉，皆屬於濕。(足太陰濕土，乃脾胃之氣也)

○ 火類: 諸熱瘧，瘧，暴暗，冒昧，躁擾，狂越，罵詈，驚駭，附腫，疼酸，氣逆衝上，禁栗如喪神守，噦，嘔，瘡，瘍，喉痹，耳鳴，耳聾，嘔湧(溢食不下)，目昧不明，暴注，瞶瘧，暴病暴死，皆屬於火。(少陽相火之熱，乃心包絡三焦之氣也)

○ 燥類: 諸泄，枯，涸，乾，勁，皴揭，皆屬於燥。(陽明燥金，乃肺與大腸之氣也)

○ 寒類: 諸病上下所出水液澄徹清冷，癥，瘕，癰疽，堅痞腹滿急痛，下利清白，食已不饑，吐利腥穢，屈伸不便，厥逆禁固，皆屬於寒。(足太陽寒水，乃腎與膀胱之氣也)

인용 자료 3. 공정현, 『수세보원』

▶ 五運主病

○ 諸風掉眩，皆屬肝木。

掉，搖也。眩，昏亂旋運也，風主動故也。所以風氣盛而頭目眩暈者。由風木旺，必是金衰不能制木。而木復生火，風火皆屬陽，多爲兼化。陽主乎動，兩動相搏，則爲之旋轉，故火本動也，焰得風自然旋轉。如春分至小滿，而爲二之氣分。風火相搏，則多起飄風，俗謂旋風是也。四時皆有之。由五運六氣，千變萬化，衝盪擊搏，推之無窮。安得失時而便謂之無也，但有微甚而已，人或乘車躍馬，登舟環舞，其動不止，而左右紆曲，經曰：曲直動搖，風之用也。眩暈而嘔吐者，風熱甚故也。

○ 諸痛癢瘡瘍，皆屬心火。

人近火氣者，微熱則癢，熱甚則痛，附近則灼而爲瘡，皆火之用也。或癢痛如針輕刺者猶飛迸火星灼之然也。癢者美疾也，故火旺於夏；而萬物蕃鮮榮美也。炙之以火，漬之以湯，而癢轉甚者，微熱之所使也。因而癢去者，熱令

皮膚寬緩，腠理開通，陽氣得泄，熱散而去故也。或夏月皮膚癢，而以冷水沃之不去者，寒能收斂，腠理閉密，陽氣鬱結，不能散越，怫熱內作故也。癢得爬而解者，爬爲火化，微則亦能令癢，爬令皮膚辛辣，而屬金化，辛能散，故金化見而火力分解矣。或云痛爲實，癢爲虛，非謂虛爲寒也。正謂熱之微甚也。或疑瘡瘍，皆屬火熱，而反腐出膿水者何也？猶穀肉菜果，熱極則腐爛而潰爲污水，潰而腐爛，水之化也，蓋所謂五行之理，過極則勝己者反來制之，故火熱過極，則反兼於水化。又如鹽能固物，令不腐爛者，咸寒水化，制其火熱，使不過極，故得久固也，萬物皆然。

○ 諸濕腫滿，皆屬脾土。

地之體也，土濕過極，則痞塞腫滿，物濕亦然。故長夏屬土，則庶物隆盛也。

○ 諸氣憤鬱，病痿，皆屬肺金。

憤謂滿也，鬱謂奔迫也，痿謂手足痿弱，無力以運動也。大抵肺主氣，氣爲陽，陽主輕清而升，故肺居上部，病則其氣滿奔迫，不能上升。至於手足痿弱無力運動者，由肺金本燥，燥之爲病也，血液衰少，不能榮養百骸故也。經曰：目得血而能視，掌得血而能握，指得血而能攝，足得血而能步，故秋金旺，則霧氣蒙鬱而草萎落，病之象也。

○ 諸寒收引，皆屬腎水。

收斂引急，寒之用也，故冬寒則拘縮矣。

▶ 六氣爲病

○ 風類: 諸暴強直，支痛痙戾，裏急筋縮，皆屬於風。厥陰風木，乃肝膽之氣也。

暴，卒也；強直，堅勁也；支痛，支持也。謂堅固支持，筋攣不柔而痛也。

痙，縮也；戾，乖戾也。謂筋縮裏急，乖戾失常而病也。然燥金主於緊斂，短縮，勁切，風木爲病，反見燥金之化者，由亢則害，承乃制也。況風能勝濕而爲燥也。

風病勢甚而成筋攣縮者，燥之甚也，故甚者，皆兼於燥也。

○ 熱類: 諸病喘嘔吐酸，暴注下迫，轉筋，小

便混濁，腹脹大，鼓之如鼓，癰疽瘍疹，瘤氣結核，吐下霍亂，瞀鬱腫脹，鼻塞衄衄，血溢血泄，淋閉，身熱惡寒戰慄，驚惑悲笑，譫妄，衄衄血汗，皆屬於熱。少陰君火主之，乃真心小腸之氣也。

喘，火氣甚而爲夏熱，衰爲冬寒，故病寒則氣衰而息微。病熱則氣盛而息粗而爲喘也。

嘔，胃膈熱甚則爲嘔，火氣炎上之象也。

吐酸者，肝木之味也。由火盛制金，不能平木，而肝木自甚，故爲酸也。如飲食熱則易於酸矣。或言吐酸爲寒者誤也。且如酒之味苦而辛熱，能養心火。故飲之則令人色赤氣粗，脈洪大而數，語澁譫妄，歌唱悲笑，喜怒如狂，冒昧健忘，煩渴嘔吐，皆熱症也。其吐必酸，爲熱明矣。況熱則五味皆厚。經曰：在地爲化，化生五味，故五味熱食，則味皆厚也。是以肝熱則口酸，心熱則口苦，脾熱則口甘，肺熱則口辛，腎熱則口鹹。或口淡者胃熱也。胃屬土。土爲萬物之母，胃爲五臟之本，故傷生冷堅硬之物，則令人噫醋吞酸，猶寒傷皮毛，能令陽氣壅滯而爲病熱也，俗醫妄以爲冷，主溫和脾胃而復愈者，猶傷寒用麻黃桂枝葯發表，令汗出而愈也。若久吐酸不已，則不宜溫之。當用寒葯以下之，後以涼葯調之。所以中酸而不宜食油膩之物者，皆因能令氣之壅塞也。

暴注，卒瀉也；腸胃熱甚，而傳化失常，火性疾速故也。

下迫，裏急後重也。火能燥物，能令下焦急迫也。

轉筋。熱燥於筋而筋轉也，或言轉筋爲寒者誤也。所謂轉者動也，陽動陰靜，熱症明矣。霍亂吐瀉之人，必有轉筋之症。大法吐瀉煩渴爲熱，不渴爲寒，霍亂轉筋而不渴者，未之有也。或曰：以溫湯漬之則愈，以冷水沃之則劇，何也？蓋溫湯能令腠理開發，熱氣消散，轉筋即止。冷水能令腠理閉密，熱氣鬱塞，轉筋不止。世俗見溫湯漬之而愈，妄疑爲寒也。

小便混濁，天氣寒則水清潔；天氣熱則水混濁。如清水爲湯，則自混濁也。

腹脹大鼓之如鼓，氣爲陽，熱甚則氣盛，故腹脹滿也。

癰，淺而大也。經曰：熱盛血則爲癰膿也。

疽，深而惡也。

瘍，有頭小瘡也。

疹，浮小隱疹也。

瘤氣、赤瘤、丹熇，熱勝氣也。結核，熱氣鬱結堅硬，如果中核也，不必潰發，但令熱氣散，自然消也。

吐下霍亂，三焦爲水穀傳化之道路，熱氣甚則傳化失常，而吐瀉霍亂也。或言吐瀉爲寒者誤矣，大法吐瀉煩渴爲熱，不渴爲寒。或熱吐瀉，初得之亦有不渴者，若止則亡液而後必渴。或寒不渴，若亡津液過多，則亦燥而渴也。大抵完穀不化而色白，吐利腥穢，澄澈清冷，小便清白不澁，身涼不渴，脈沈細而遲者，寒證也。如小兒病熱吐利，乳未消而色尚白，不可便言爲寒，當以飲食葯物之色別之，若穀雖不化，面色變非白，小便赤黃，吐利煩渴，脈洪大而數者，熱證也。蓋瀉白爲寒，餘皆爲熱。瀉白者，肺金之色也，由寒水甚而制火，不能平金，肺金自甚，故色白也。瀉青者，肝木之色也，由火盛制金，不能平木，肝木自甚，故色青也。如傷寒少陰下利清水，色純青，仲景以大承氣湯下之，爲熱明矣。瀉黃者，脾土之色也，由火甚水衰，脾土自旺，故色黃也。瀉紅者，心火之色也。瀉黑者，腎水之色也，由亢則害，承乃制，火熱過極，反兼水化制之，故色黑也。下痢色黑者卽死，又如瘡癰皆屬火熱，其本一也。其標則有五焉，以其在皮膚之分，屬肺金，故出白膿；以其在血脈之分，屬心火，故爲血癰；以其在肌肉之分，屬脾土，故出黃膿；以其在筋之分，屬肝木，故其膿見蒼色；深至骨，屬腎水，故紫黑血也。若以下痢黑者爲寒，然則瘡癰之出紫黑血者，亦爲冷歟？又如赤痢，本濕熱之相兼也，舉世皆言赤痢爲熱，白痢爲寒者，誤之久矣。殊不知陰陽之道，猶權衡也。一高則必一下，一盛則必一衰。故陽盛者陰必衰，陰盛者陽必衰，自然之理也。豈有陰陽二

氣，俱盛於腸胃，而同爲赤白之痢乎？夫痢何也？蓋因六七月之交，世之穀肉果菜，飲啖無度，濕熱大甚，人食之，感其毒氣於腸胃之間，而爲下膿血赤白也。治痢之法，當以苦寒之藥治之。如宋朝錢仲陽處香連丸以治小兒之痢，深得玄理。木香苦溫，黃連苦寒，苦能燥濕。寒能勝熱，溫能開發腸胃之鬱結，愈痢多矣。今世俗醫，但以辛熱薑桂之藥，以治諸痢。病之微者，能令腸胃開通，鬱結消散，偶或一愈。病之甚者，怫熱不開，痢疾轉甚，輕則爲小溲不通水腫之疾，重則爲督亂之病而死矣。深可嘆哉。又如婦人赤白帶下之病，同乎痢也，蓋人有十二正經脈，有奇經八脈。帶脈者，奇經之一也，起于季脅，回身一周，如束帶然。婦人下焦濕熱太甚，津液涌溢，從帶脈淋瀝而下也。舉世皆言白帶爲寒者，亦誤矣。凡病此者，必頭目昏眩。口舌舌乾，咽嗑不利，小便赤澀，大便閉滯，脈實而數，皆熱證也。治帶下之法，亦以辛苦寒藥爲主，不可驟用燥藥及熱藥，以損人生命也。又如酒蠱而大便濡瀉者，亦中濕熱也。或水腫，或發黃，皆濕熱也。嗚呼！人既有形，不能無病；有生，不能無死。然醫者但當按法治之，若標本不明，陰陽不審，誤投湯藥，實實虛虛而死者，是誰之過歟？故曰：“世無良醫，枉死者半”，誠不誣矣。

督，神昏而氣濁也。

鬱，熱極則腠理鬱結，而氣道不通也。

腫脹。陽熱太甚，則腫滿脹也。如六月底物隆盛，腫脹之象明可見矣。

鼻塞，謂鼻塞也。傷風寒於腠理，而爲鼻塞，寒能收斂，陽氣不通暢也。人側臥，則下竅通利，上竅反塞者，謂陽之經左右相交於鼻也。

鼫，鼻出清涕也。

衄，鼻出血也。

血溢，血出於上竅也。

血泄，血出於下竅也。

淋，熱客膀胱，小便澀痛也，或曰小便澀而不通爲熱，遺洩不禁爲冷。豈知熱甚客於腎部，干於足厥陰之經，廷孔鬱結極甚，氣液不能宣

通，故痿痺而神無所用，津液滲入膀胱而爲洩也。如傷寒少陰熱極則遺洩，其理明矣。世傳衆方，又有冷淋之說，可笑也。已及觀其所治之方，還用榆皮、瞿麥苦寒之藥，其說雖妄，其方乃是。由不知造化變通之理，宜乎認是而作非也，學不明而欲爲醫，難矣哉！

閉，大便澀滯也，由火盛制金，不能平木，肝木生風，風能勝濕，濕能液故也。

身熱惡寒，邪熱在表而反惡寒也。故仲景治傷寒之法以麻黃湯汗之。或寒在皮膚，則熱在骨髓；熱在皮膚，則寒在骨髓，此說非也。

戰慄，謂火熱過極，反兼水化制之，故戰慄而動搖也，傷寒日深，大汗欲出，必先戰慄，熱極故也。人恐懼而戰慄者，恐則傷腎，水衰故也。驚，心卒動而不寧也。

惑，疑惑而志不一也。

悲，謂心血熱甚，則凌肺金，金不受制，故發悲哭也。悲哭而涕淚俱出者，如火煉金，反化爲水也，是以肝熱盛則出泣，心熱盛則出汗，脾熱盛則出涎，肺熱盛則出涕，腎熱盛則出唾。猶夏熱太盛，則林木流津也。

笑，心火熱甚，喜志發也。或以輕手擾人脅肋臆腋，令癢而笑者，擾亂動搖，火之化也。

譫，多言也，心熱神亂，則語言妄出也。

妄，狂妄也，心熱神昏則目有所見也。

衄衄血汗，謂鼻出黑血也。

○濕類：諸瘧強直，積飲，痞隔中滿，吐下霍亂，體重節腫，肉如泥，按之不起，皆屬於濕。太陰濕土，乃脾胃之氣也。

瘧，瘧也，強直，謂項強也。太陽經中濕，則令人項強。有汗者曰陰瘧，仲景所謂柔瘧是也；無汗者曰陽瘧，仲景所謂剛瘧是也。

積飲，謂留飲也。

痞，否也，謂氣不升降也，如否卦陽在上，陰在下，則天地閉塞矣。

隔，阻滯也，腸胃濕甚，則傳化失常也。

中滿，土位中央，濕則令人中焦滿也。

吐下霍亂，謂腸胃濕飲相兼故也。

體重，清陽爲火，濁陰爲地，濕土爲病，體重宜

也。

肘腫，濕勝於下也。

肉如泥，按之不起，濕勝於身也。

○ 火類：諸熱瘡癰，暴暗，冒昧，躁擾狂越，罵詈，驚駭，肘腫疼酸，氣逆衝上，禁栗如喪神守，噦嘔，瘡瘍，喉痹，耳鳴及聾，嘔涌溢食不下，目昧不明，暴注瞶瘖，暴病暴死，皆屬於火。少陽相火，乃心包絡三焦之氣也。

瘡，昏也，君火化同。

瘖，熱令肌肉跳動也。

暴暗，卒啞也，心火熱盛，上克肺金，不能發聲也。

冒昧，昏憤也。

躁擾，調熱盛於外。手足不寧也。

狂越，調乖越禮法而失常也。經曰：登高而歌，棄衣而走，罵詈不避親疏，熱極故也。

罵詈，言之惡也。水數一，道近而善；火數二，道遠而惡。心火熱極，則發惡言也。驚駭，君火化同。

肘腫，熱勝於內也。

疼酸，酸疼者，由火勝制金，不能平木故也。

氣逆衝上，火氣熱，炎上也。

禁栗如喪神守，栗，戰慄也。禁，冷也。喪神守，火極而似水化也。

噦，鼻中因癢而氣噴作於聲也。

嘔、瘡瘍，君火化同。

喉痹，熱客上焦而咽嗑腫也。

耳鳴，熱衝聽戶，耳中作聲也。

聾，水衰火盛，氣道閉塞，耳不聞聲也。微則可治，久則難通。

嘔涌溢食不下，胃腸熱盛，火氣炎上之象也。

目昧不明，五臟熱極，則目昏不能視物也。

暴注、卒瀉也。君火化同。

瞶瘖，惕跳而肉動也。

暴病暴死，火性疾速故也。由其平日飲食衣服，性情好惡，不循其宜，而失其常，久則氣變興衰而為病也。蓋因腎水衰虛，心火暴盛，水不能制之，熱氣怫鬱，心神昏冒，則筋不用，卒倒而無所知也。若熱甚至極則死，微則發過如故，

俗云暗風。若血氣鬱結，不得宣通，鬱極乃發，若一側得通利，否者痺而癱瘓也。

○ 燥類：諸澁枯涸，乾勁皴揭，皆屬於燥。陽明燥金，乃肺與大腸之氣也。

澁，遍身澁滯，不滑澤也。

枯，不榮生也。

涸，不流通也。

乾，不滋潤也。

勁，不柔和也。

皴揭，皮膚開裂也。

○ 寒類：諸病上下所出水液，澄澈清冷，癰疽癰疔，堅痞，腹滿急痛，下痢清白，食已不飢，吐利腥穢，屈伸不變，厥逆禁固，皆屬於寒。足太陽寒水，乃腎與膀胱之氣也。

上下所出水液，澄澈清冷，如天氣寒，則水自然澄清也。

癰，氣聚之積，或聚或散，無有常處也。

瘕，血積之塊，蓋由女子月水沈滯，久而成瘕也。經曰：小腸移熱於大腸，為虛瘕，為沈。然則血瘕亦有熱者也，當以標本明之。

癰疽，足厥明經受寒則陰腫也。

堅痞，腹滿急痛，如水寒則冰堅硬如地也。

下痢清白，水寒則清而明白也。

食已不飢，胃熱能消穀，寒則不能消穀，雖已而亦不飢也。

吐利腥穢，寒水甚而制火，則不能平金，肺金自盛，故水腥也。

屈伸不變，厥逆禁固，謂手足蜷攣而冷也。

인용자료 4. 「五行與疾病的關係」

○ 木：諸風掉眩屬肝木，諸暴強直風所因，支痛軟戾難轉側，裏急筋縮兩脅疼。

【注】在天為風，在地為木，在人為肝，在體為筋。風氣通於肝，故諸風為病，皆屬於肝木也。掉，搖動也，眩，昏暈也。風主動旋，故病則頭身搖動目昏眩暈也。暴，卒也，強直，筋病，強急不柔也。風性勁急，風入於筋，故病則卒然筋急強直也。其四肢拘急疼痛，筋軟短縮，乖

戾失常，難於轉側，裏急脅痛，亦皆風傷其筋，轉入裏病也。

▶木屬：肝，膽，眼，筋膜(四肢，風濕症，關節炎)。比較容易生久年病的部位爲神經，腦，筋脈，頭，項，兩手，兩腿；患者常罹患的疾病爲膽石症，頭痛，斷肢……等。

▶木日主遭剋洩太過，或居生，死，絕之地：易患頭痛，頭眩，小腹痛，筋骨痛，嚴重者四肢傷殘，咳嗽，耳聾，重聽之疾；發生時間則依八字歲運而定。

○火：諸痛癢瘡屬心火，諸熱昏暗躁譫狂，暴注下迫嘔酸苦，膺背徹痛血家殃。

【注】在天爲熱，在地爲火，在人爲心，在體爲脈。熱氣通於心，故諸火痛癢瘡之病，皆屬於心火也。熱微則燥，皮作癢。熱甚則灼，膚作痛。熱入經脈與血凝結，淺則爲癰，深則爲疽，更深入之，則傷臟腑。心藏神，熱乘於心，則神不明，故昏冒不省人事也。心主言，熱乘於心，則神不辨，故暗而不能言，或妄言而譫語也。火主動，熱乘於身，則身動而不寧，故身躁擾，動甚則發狂也。暴注者，卒暴水瀉，火與水爲病也。下迫者，後重裏急，火與氣爲病也。嘔吐酸苦，火病胃也。膺背徹痛，火傷胸也。血家殃者，熱入於脈，則血滿騰，不上溢則下瀉，而爲一切失血之病也。

▶火屬：心臟，小腸，(十二指腸)，舌，血脈(扁桃腺)。比較容易生久年病的部位爲，小腸，心，咽喉，眼耳，肩，胸，齒，舌；患者常罹患的疾病爲，心臟病，敗血，關節，香港腳，眼喉疾病。

▶火日主遭剋洩太過，或居生，死，絕之地：易患心臟病，驚嚇，健忘，腰痛，失眠，小腸諸疾，夜尿，貧血，遺精之疾；發生時間則依八字歲運而定。

○土：諸濕腫滿屬脾土，霍亂積飲痞閉疼，食少體重肢不舉，腹滿腸鳴飧泄頻。

【注】在天爲濕，在地爲土，在人爲脾，在體爲

肉。濕氣通於脾，故諸濕爲病，皆屬於脾土也。濕蓄內外，故肉腫腹滿也。飲亂於中，故病霍亂也。脾失健運，故病積飲也。脾氣凝結，故病痞硬，便閉而痛也。脾主化穀，病則食少也。脾主肌肉，濕勝故身重也。脾主四肢，四肢不舉，亦由濕使然也。脾主腹，濕淫腹疾，故腹滿，腸鳴，飧泄也。

▶土屬：脾，胃，唇，肌肉。比較容易生久年病的部位爲，脅附近，腸消化系，切身，後背；患者常罹患的疾病爲，胃病，皮膚病，腸病，齒痛，瘡毒。

▶土日主遭剋洩太過，或居生，死，絕之地：易患腹痛，嘔吐，腹漲氣，口臭，胃疾，腳氣病，消化系統，浮腫之疾；發生時間則依八字歲運而定。

○金：諸氣鬱痿肺金，喘咳痰血氣逆生，諸燥澹枯涸乾勁，皴揭皮膚肩臂疼。

【注】在天爲燥，在地爲金，在人爲肺，在體爲皮。燥氣通於肺，故諸燥氣爲病，皆屬於肺金也。鬱，謂氣逆胸滿，鬱不舒也。痿，謂肺痿咳嗽，唾濁痰涎不已也。喘咳氣逆，唾痰涎血，皆肺病也。凡澹枯涸乾勁，皆燥之化也。乾勁似乎強直，皆筋勁病也。故卒然者，多風入而筋勁也。久之者，多枯燥而筋勁也。皴，膚皴澹也。揭，皮揭起也，此燥之病乎外也。臂肩痛也，亦燥之病於經也。

▶金屬：肺，呼吸器官，大腸，皮膚過敏。比較容易生久年病的部位爲，大腦，小腦，腎，肋膜，精血，臍，股；患者常罹患的疾病爲，呼吸系統之病，肺病，鼻，痔。

▶金日主遭剋洩太過，或居生，死，絕之地：易患咳嗽，吐血，肺病，痰多，喉疼，胸腔之疾，亦有腸疾，便秘，痔瘡之疾；發生時間則依八字歲運而定。

○水：諸寒收引屬腎水，吐下腥穢微清寒，厥逆禁固骨節痛，癥瘕疝堅腹急滿。

【注】在天爲寒，在地爲水，在人爲腎，在體爲

骨。寒氣通於腎，故諸寒氣爲病，皆屬於腎水也。收，斂也，引，急也。腎屬水，其化寒，斂縮拘急，寒之化也。熱之化，吐下酸苦，故寒之化，吐下腥穢也。熱之化，水液混濁，故寒之化，澄澈清冷也。厥逆，四肢冷也。禁固，收引堅勁。寒傷於外，則骨節痛也。寒傷於內，則癢，疝，腹急堅痛也。

▶水屬：腎，膀胱，泌尿系統，婦女病，耳，骨髓。比較容易生久年病的部位爲，便秘，痔，子宮方面，泌尿道，陰部，眼，痰；患者常罹患的疾病爲，腎臟炎，腦溢血，婦人病，近視，失明，下部出血疾患。

▶水日主遭剋洩太過，或居生，死，絕之地：易患腎病，耳鳴，耳聾，重聽，目疾，腰酸背痛，健忘，尿道，膀胱之疾，下痢，白帶白濁，腦疾；發生時間則依八字歲運而定。